

형 법

1.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전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추급효 인정설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시법의 실효기일이 임박할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는데도 이것을 처벌할 수 없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 ③ 동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형벌이 폐지된 이유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추급효 부정설은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 ⑤ 우리 형법전에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2.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만으로 연결된 것은?

- ① 피구금부녀간음죄-절도죄
- ② 살인죄-낙태죄
- ③ 폭행죄-협박죄
- ④ 업무방해죄-상해죄
- ⑤ 손괴죄-강간죄

3. 다음 <보기>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면?

<보기>

- ㉠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 우리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고의의 요소라고 한다.
-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 ㉤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 ㉥ 우리 형법은 정당한 이유 유무로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 ㉦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불인식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 ③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④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⑤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8.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가운데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검토가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공갈 ② 방화 ③ 살인 ④ 손괴 ⑤ 상해

9. 다음의 <보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범인의 지능	㉡ 범인의 성별	㉢ 범인의 환경	㉣ 범인의 종교
㉤ 범행의 결과	㉥ 범행의 수단	㉦ 범인의 연령	㉧ 범행의 동기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후의 정황	㉪ 범인의 성행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0. 다음 <보기>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보 기>

- ㉠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의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또는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 즉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 ㉣ 피고인이 명예훼손행위를 행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① 가-나-다

② 나-다

③ 다-라-마

④ 다-마

⑤ 라-마

11. 다음의 점유 가운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① 절도죄의 점유

② 강도죄의 점유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

④ 장물죄의 점유

⑤ 공갈죄의 점유

12.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에 국한되기 때문에 피고는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적극적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도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④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의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점이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때이다.

13.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② 피강요자가 강요상태를 자초한 때에는 강요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폭력의 개념에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협박에 대하여도 강요된 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
- ⑤ 강요자는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된다.

14. 다음 중 강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강제추행과정에서 면도칼로 음모를 면도하였다.
- ② 입으로 목을 빨아서 반상 충혈상을 입혔다.
- ③ 손바닥에 2cm정도의 긁힌 상처가 생겼다.
- ④ 강간과정에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 ⑤ 치료를 하지 않아도 3, 4일이 지나면 나올 외음부 충혈상을 입혔다.

15.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행하여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더라도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16. 자신의 구타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자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따름)

- ①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
- ② 상해치사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③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 상해치사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 ⑤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17. 甲은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 동대 방위병 乙에게 예비군 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확인서의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A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 하여 A로 하여금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의 죄책은?

- ①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 ②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
- ③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재교사범
- ④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⑤ 甲과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18.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분확인을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 ② 고속버스에 놓고 내린 핸드백을 다른 손님이 영득하였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 ③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주거침입죄의 기수 성립).
- ④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무단히 전화를 사용하였다(주거침입죄를 논외. 절도죄 성립).
- ⑤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성교하고서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논외. 사기죄 성립).

19. 다음 중 정당한 이유있는 금지착오의 예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인 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종단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품의서에 결재후 지급하였다.
- ② 쌀과자를 만들면서 구청에 질의한 결과 양곡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위반은 아니라고 회신을 받고 쌀과자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 ③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상표출원을 하고 사용하였다.
- ④ 20여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니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 ⑤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척추교정시술을 하였다.

20.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여기의 금고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말한다.
- ③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판례는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없다고 한다.
- 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켜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③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④ 친권자가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⑤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22. 임신한 부녀가 산부인과의 간호원인 옆집 여자의 도움을 받아 낙태하였다. 각자의 죄책은?

- ① 임부 : 자기낙태죄, 간호원 : 업무상동의낙태죄
- ② 임부와 간호원 : 업무상동의낙태죄의 공동정범
- ③ 임부와 간호원 :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
- ④ 임부 : 자기낙태죄, 간호원 : 동의낙태죄
- ⑤ 임부 : 자기낙태죄, 간호원 : 자기낙태죄의 중범

23.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① 보호감호-보안관찰-치료감호
- ② 보안관찰-보호처분-노동교화
- ③ 보안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 ④ 보호관찰-치료감호-보호감호
- ⑤ 보호관찰-노동교화-보호처분

24. 다음 중 간통의 유서 또는 중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름)

터썸 떨어진 곳에 방치하였다.

- ③ 타인의 토지위에 몰래 대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타인이 돌아온다고 하자 이를 베어 갔다.
- ④ 음식점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축의금을 받아서 가로챘다.
- ⑤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내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관계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8. 다음 중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통설과 판례에 따름)

- ① 고객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사들이 이 돈을 개인용으로 소비해 버리는 행위
-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이를 말소하고 다시 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
- ③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기에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하는 경우
- ④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
- ⑤ 사람을 강간살해한 후 산속에 암장하는 행위

29. 다음 중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운 것은?(통설과 판례에 따름)

- ① 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양복주머니의 외부를 더듬었다.
- ② 강간을 하려고 방문을 열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 갈 듯이 하자 피해자가 들어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갔다.
- ③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
- ④ 범인들이 회사의 담을 넘어가서 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동선을 찾으려고 담에 붙어 건다가 체포되었다.
- 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경우 우리나라 해안에 상륙하여 비밀탐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30. 다음 중 뇌물로 보기 곤란한 것은?

- ① 일정한 영업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 ②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조합아파트 분양권
- ③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가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
- ④ 차용금명목의 금전제공
- ⑤ 정치헌금명목의 금품제공

31. 다음 중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적 행위론과 인과적 행위론은 사실을 기초로 존재론적인 행위개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 ② 장물죄에서의 재물이 동산인가 부동산인가는 묻지 않는다.
- ③ 본범 또는 제3자가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성을 상실한다.
- ④ 본범이 소추되거나 처벌받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 ⑤ 본범이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

4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무고죄에 있어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 ②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일 것을 요한다.
- ③ 익명의 신고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허무인에 대한 신고도 무고가 될 수 없다.
- ④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乙을 무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